

32장(2) 깨어진 증거궤와 백성에 대한 징계

금송아지를 만든 기록에서 십계명의 언약을 깨뜨린 사실을 본다. 비유하자면, 신혼 여행 중에 파경을 만난 경우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으나 금송아지를 섬긴 그들은 그 사실의 의미도 잘 몰랐다.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방자한 태도를 취하였다.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거만하게 행하던 그들은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서 레위 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모세는 거세게 반역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백성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여호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1. 모세가 증거궤를 깨뜨림 (32:15-20)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백성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라고 하였으나 모세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노래하는 소리라고 하였다. 승전가나 패전가라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에게 침략을 받아서 싸울 경우를 상징하고 하는 말이다.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가 없을 때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승전가와 패전가라는 말은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세와 아론이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았을 때에 모세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깨뜨렸다. 여호와와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돌판을 깨뜨린 것이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백성이 물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 민수기에 보면 성막의 티끌을 물에 타서 마시게 함으로써 죄를 지은 여부가 나타나게 하였는데(민 5:11-28), 여기에서도 아마 그 가루가 처벌될 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2. 백성에 대한 벌 (32:21-29)

모세는 아론이 큰 죄를 지은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아론은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말이나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는 말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백성의 악함을 알지 않느냐고 하였다. 아론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아론의 그 말을 듣고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였다. 방자하다는 말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다. 아론의 모호한 대답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흥겨운 기분에 더 제멋대로 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로 아론과 모세는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여호와 대신에 금송아지를 택한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였다. 아론은 철저히 못하다고 조롱하고 모세는 너무 까다롭게 군다고 조롱하였을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와 편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나오라고 부르자 레위 자손이 앞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3,000명의 형제를 죽였다. 이것은 죄가 없는 사람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를 심판하였다는 말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숫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순종한 레위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주셨다(신 10:8). 레위 지파가 이 일에 참여한 것에는 아론도 포함된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을 방자하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돌키셨다. 주님의 은혜로 레위 지파가 여호와를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모세의 속죄 기도 (32:30-35)

모세는 이튿날 여호와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3,000명의 주도자를 지목하여 사형에 처했다고 그

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다. 3,000명을 죽인 레위인도 엄위로 우신 여호와 앞에서는 여전히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죄를 주동자인 3,000명에게 다 전가할 수도 없었다.

여호와와의 영광을 뺏고서 죄의 깊이를 깨달은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는 “혹 (내가)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32:30)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렇지만 모세는 완전한 구속주가 될 수는 없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형벌하셨다.

묵상과 실천:

우상 숭배의 특징과 언약을 깨뜨린 일에 대한 징계

1. 우상 숭배의 특징

출애굽기 25-31장에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께 나아오는 길을 매우 상세히 알려 주신다. 성막을 짓는 일은 여호와와의 신으로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여호와와의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은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할 정도의 쉬운 일이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성막의 거룩함과 단정함과 거리가 멀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그 제사는 사람의 흥을 돋우었으나 사람을 거만하고 호전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참조 고전 10:7).

우상 숭배의 특징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사람이 ‘조정’ 하려고 한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그 형상을 이용한다. 그들은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을 형상으로 구체화한 후,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 신을 만족시키고 그 신에게서 그러한 능력을 얻어 자기의 행복을 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우상을 통해 신을 달래고 통제하려는 행위는 ‘형상을 통한 예배’ 였지만, 이것은 곧 ‘형상에 대한 예배’ 로 귀결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데(마 4:10), 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피조물에게 절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자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 놀면서 ‘통제 불가능의 상태’ 로 떨어진다.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세의 말고 회개하는 대신 오히려 조롱하면서 그들의 힘으로 대항하였다. 모세는 레위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처형하게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처음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의 ‘두려움’ 을 이용한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안전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홍해에서부터 애굽 군대의 추격도 받았고 광야에서 아말렉의 공격도 받은 일을 지적하면서 백성의 두려움을 자극하였다. 그러한 군중 심리가 먹히면서 우상 숭배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참된 안식을 찾았기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온갖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칼빈의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만족함을 찾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2. 모세의 두 가지 행동 - 징계와 간구

모세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서 그의 두 손에 있는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다. 십계명의 서문과 제2계명을 명백히 어기고 있는 현실을 보고서 언약의 돌판을 깨뜨린 것이다.

모세는 언약을 깨뜨린 심각성도 모르고 여전히 머리를 풀어헤치고서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을 도륙하게 하였다. 여호와와 의 편에 서는 자들을 불러서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여서 이스라엘 안의 거역하는 세력을 잠잠케 하였다.

그렇지만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긴 일의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만 돌리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께 서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다.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함을 받더라도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한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하여 행하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바른 답을 찾을 수 없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다. 모세도 언약한 인간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의 일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경험한다. 그리스도의 사죄를 맞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삼가고 오직 주님의 자비를 더욱 구하는 자리로 들어간다.

32장 (2) 익힘 문제

1. 1)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증거판은 누가 만드었으며 그 글자는 누가 쓰신 것이었습니까? (16절)
- 2)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 3)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절)
2. 1) 아론은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변명하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방자하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까? (24-25절)
- 2) 여호와와 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을 도륙한 자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날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26, 28절)
- 3) 그들이 죽인 자들은 그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27, 29절)
3.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뻐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